



9일 담양군 담양읍에서 토마토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한 농민이 격정스런 표정으로 비닐하우스 내 온풍기를 손질하고 있다. /위지랑기자 jrvi@kwangju.co.kr

난방비 폭등에 시설재배 농가 한숨만

“겨울농사 지어... 말어...”

최근 폭 떨어진 기온만큼이나 시설재배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기름값 상승에 따라 늘어날 겨울철 농사 난방비 걱정 때문이다. 인건비나 비료값이 폭등하고 있고, 시설재배소의 경우 가을 채소가 과잉생산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을 더해주고 있다.

9일 곡성군 입면 중방리에서 5천㎡의 비닐하우스 3동에 스킨과 아래카 등 5종류의 풋을 키우고 있는 정모(35)씨는 올 겨울 소요일 난방비 걱정에 한숨을 푹 내쉬었다. 지난해 8월 600원인 난방비 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올겨울 난방비 걱정에 한숨을 푹 내쉬었다. 지난해 8월 600원인 난방비 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 곳도 시설 재배가 가능한 물론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섭씨 10~15도로 유지돼 냉난방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 겨울 농사를 포기하는 시설재배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역난방시설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돼 농가들이 부담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순환식 수막재배를 위한 관리시스템 설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순환식 수막재배는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설치한 뒤 비닐 사이에 섭씨 10~15도의 지하수를 순환시켜 온도를 유지하는 재배 방식이다. 기존 수막시설에 비해 20%의 물

만 갖고도 시설 재배가 가능한 물론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섭씨 10~15도로 유지돼 냉난방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 겨울 농사를 포기하는 시설재배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역난방시설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돼 농가들이 부담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설재배소의 경우 가을 채소가 과잉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영암군 도포면에서 상추 비닐하우스를 하는 박모(48)씨는 “김장용 채소가 폭락하고 심지어 산지폐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채소농사를 지어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른 지난해 같은기간 2천500만원에 비해 배나 오를 금액이다. 이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화훼 구입비와 자재비, 비료 값 등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

해남지역구 전남도의회 의원인 만취상태를 차를 몰던 중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0시 30분께 해남군 삼산면 한 도로에서 전남도의회 김모(46·해남군 제2선거구) 의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지나던 정모(62)씨와 또 다른 정모(여·50)씨 등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경감사에서 지적됐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일부 입주 공장들의 가짜 샌드위치 패널(내부 마감용 단열보존재) 사용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평동산단 내 8개 업체에서 3조각씩 총 24조각의 패널을 수거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상당수 패널이 난연성이 떨어지는 부적합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의원 만취 교통사고 물의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2세 여아 아파트 13층서 의문의 추락 사망

북부경찰, 정신장애 초등학생 용의자 조사

광주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2살 여아가 떨어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11살짜리 초등학생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45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 3층에 사는 A(2)양이 떨어져 있는 것을 A양의 어머니(29)가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CCTV 분석 결과 A양과 같은 아파트 6층에 사는 B(11·초등 4년)군을 살인 용의자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CCTV에는 B군이 당시 승강기에 혼자 타고 있던 A양과 6층에서 동승하는 장면과 13층에서 A양을 강제로 끌고 내리는 장면, A양이 아파트에서 떨어진 뒤 B군이 다른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 등이 찍혀 있었다.

A양이 높이가 1m17cm인 난간에서 스스로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은 점으로 미뤄 B군이 A양을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내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군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주의력 결핍과 충동적 과잉행동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지난해 여름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평소에도 물건을 따치는 대로 집어던지는 습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왔으며, 최근에는 다른 방법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아들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으며, 형사미성년자(촉박소년)인 B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시 북부 여아 추락·사망사건 당시 모습을 담은 승강기 CCTV 화면. 1 A양이 혼자 승강기를 타는 모습. 2 B군이 A양이 탄 승강기에 타는 모습. 3 B군, A양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 4 A양이 B군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

생후 10일 아들 살해한 엄마 자살

산후 우울증 탓에 생후 10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재판 받고 있던 비영의 20대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은 자살 직전에 자신이 살해했던 아들에 대한 죄의식을 담은

유서를 남겼으며, 임신 이후 태아의 상태를 기록하는 ‘산모수첩’을 품에 안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영아 살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던 김모(여·28·광주시 동구)씨가 지난 8일

오후 6시50분께 자신의 빌라 안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남편(3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안방에는 김씨가 자살하기 직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과 유서가 작성된 노트가 발견됐으며, 김씨는 산부인과에서 아이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나눠준 산모수첩을 팔에 낀 상태로 숨져있었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등 숨진 아이에 대한 집착과 자신을 원망하는 내용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김씨는 지난 9월 20일 생후 10일 된 자신의 아들을 질식사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최근까지 광주 동 중합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평동산단 일부 공장 ‘가짜 패널’ 사용 확인

국경감사에서 지적됐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일부 입주 공장들의 가짜 샌드위치 패널(내부 마감용 단열보존재) 사용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평동산단 내 8개 업체에서 3조각씩 총 24조각의 패널을 수거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상당수 패널이 난연성이 떨어지는 부적합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판간 감정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대로 가짜 패널을 사용한 공장 건축물의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시공업체의 경우 가짜 패널이 잘 알고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리업체는 가짜 패널 사용 여부를 알고도 준공검사를 내줬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다중의 건축·산업재 KCC (주) 금록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역시 : 061) 337-0571

국회의원 역대 절도 신고 철회 왜?

○현역 국회의원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수사 요청을 뒤늦게 철회해 고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9일 서울마포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새벽 3시께 모 정당 비례대표 A국회의원의 집에 도둑이 침입해 현금, 수표, 시계와 다이아몬드 등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이날 오전 7시에 A의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 물품 등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 금품 중 대부분은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A의원 처제의 재산이며, 의원 소유의 금품은 현금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

○하지만 A의원 측은 당일 뒤늦게 경찰서를 방문해 도둑 맞은 물품이 없다고 수사 요청 철회 입장을 밝혀왔으며, 경찰은 범죄가 발생한 만큼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 /연습스

마실수록 가벼워지는 수소수!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수소 함유를 확인한 노벨화학상 수상 연구자 발표!
수소수 마시면 혈액순환 개선! 노화방지! 면역력 50% 향상!
1. 활성산소 제거
2. 산화방지
3. 피부미용
4. 운동후 회복
5. 체중감소
6. 혈액순환 개선
7. 노화방지
8. 면역력 향상
9. 스트레스 해소
10. 수면 개선
11. 소화 개선
12. 혈압 조절
13. 당뇨 조절
14. 고콜레스테롤血症 개선
15. 알츠하이머병 예방
16. 파킨슨병 예방
17. 뇌혈관 질환 예방
18. 심장질환 예방
19. 당뇨병 예방
20. 암 예방

11월14일(금) 대격돌!
VIP 특원비 국풍시카파라
니운아 VS 남진아
서울카바레나이트
(대인동 롯데백화점 4F)